

재외동포용 한국어 교재 개발의 성과 및 과제*

김 중 섭

Abstract

Kim, Jungsup. 2014. 2. 28. **Tasks and Outcomes from the Development of Korean Language textbooks for Ethnic Koreans.** *Bilingual Research* 54, 55-74.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development of Korean language textbooks for ethnic Koreans abroad from its initial stage to the present situation as well as the efficacy of Korean language texts for the purpose of instructing ethnic Koreans who have lived abroad. This paper will analyze developed textbooks for ethnic Koreans who have lived abroad in terms of various criteria such as timeliness as well as demand. We will also inspect the meaning and purpose of incorporating the education of local customs in the development of teaching materials for this target audience. Despite efforts on the part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its education policy encouraging the training and education of specialists for training overseas Koreans there is still a need to develop a systematic Korean textbook for this specific purpose. To this end, there are a variety of teaching resources being developed to strengthen teacher training and development. Because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of ethnic Koreans abroad presents its own special challenges, educational efforts should focus on expanding the groundwork previously laid and to develop a unified forum for sharing our educational efforts. In addition, there is a further need to develop a comprehensive textbook due to current trends immigration policies as well as policies governing minority languages. **(Kyung Hee University)**

* 이 논문은 국립국어원에서 주최하고 한국어문학술단체연합회·이화여대 다문화연구소에서 주관한 2013년 한국어문학술단체연합회 전국학술대회(2013. 10. 11,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한 것임.

【Key words】 재외동포(Overseas Koreans), 한국어 교재(Korean Language Textbook), 교재 개발(Textbook Development), 계승어(Heritage Language)

1. 서론

재외동포용 한국어 교재는 1973년도 문교부 주관으로 개발된 ‘국어(재미 어린이용)’를 시작으로 일찍부터 정부 차원에서 꾸준히 개발되어 왔다. 그러나 한국어를 구사하는 이민 1세대와는 달리 현지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이민 2, 3세대 재외동포의 경우 주말과 방학을 이용해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 정확한 한국어 구사가 어려울 뿐 아니라 한국어의 사용 빈도가 낮아 한국어 학습 동기도 저하되어 있는 점은 더욱 다양한 단계와 유형의 한국어 교재 개발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¹⁾ 범용 교재로 제작된 『한국어(1~8)』 이후에 한글학교 교육과정에 맞춰 또 하나의 범용 교재인 『한글학교 한국어(1~6)』가 개발되고 이를 다시 현지의 문화적, 언어적 특성을 반영한 교재로 현지화하는 현지 맞춤형 한국어 교재 개발 사업은 이러한 현실이 반영된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안정현(2003:35)에서 밝혔듯 2000년 이전까지는 영어, 일어, 서반어 등 7개 언어권별 교재가 개발되었으나 각 언어권별 교재가 그 나라의 문화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한국어를 해당 외국어로 번역하는 정도로만 개발된 교재였다는 점과 비교하면 매우 큰 변화이다. 재외동포의 경우 지역별로 이주 역사와 배경이 다를 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마다 한국과 한국어의 지위가 달라 한국어 능력 및 한국어 학습 목적에

1) 김중섭(2011:628-629)에서는 재외동포의 한국어 능력 약화는 이들의 정체성 혼란으로 이어져 현지에서의 안정적 삶을 영위하고 한인 사회를 발전적으로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재외동포 2,3세를 위한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과 가치를 강조했다.

차이가 크므로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한 한국어 교재로 접근하는 것은 효율적인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교재의 현지화 작업이 범용 교재를 단순히 번역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지의 특성을 반영하여 독자성을 가지고 개발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개발된 재외동포용 한국어 교재의 성격을 시기별로 분석하고 현지에서의 수요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그간의 재외동포용 한국어 교재 개발 성과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또한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의 의미와 목적을 국가적 차원과 재외동포의 입장에서 점검함으로써 현지 맞춤형 한국어 교재 개발의 필요성과 의의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재외동포 대상 한국어 교재 개발 및 활용을 위한 향후 발전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검토

2.1. 재외동포 교육에서 한국어가 갖는 의미

초기의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교육은 모국어로서의 한국어라는 인식에서부터 출발했다. 그러나 재외동포의 현지 거주 기간이 길어지고 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재외동포가 증가하면서 현지어가 제1 언어가 되고 한국어가 제2 언어가 되는 경향에 대한 논의(김재욱, 2002; 정명숙, 2010)가 이어졌고, 한국어와 현지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는 이중언어적 성격으로서의 논의(박영순, 2005; 김민수, 2005; 원진숙·박나리, 2002)도 다수 있었다. 최근에 와서는 재외동포 교육에서 한국어를 ‘상속어, 계승어로서의 한국어’로 인식하고 한국어 교육의 방법과 과제들을 제시한 연구(조태린, 2010; 강승혜, 2013; 이정희, 2013)가 이어지고 있다.

먼저 김재욱(2002)에서는 재외동포의 경우 가정에서는 한국어를 사용하지만 밖에서는 각 나라의 현지어를 사용하는 이중언어적 특성을 보이

며, 현지어를 제1 언어로, 한국어를 제2 언어로 구사하는 경우가 많음을 역설하고 있다. 정명숙(2010)에서는 재외동포 아동들이 초기에는 한국어를 제1 언어로 습득하다가 학령기에 접어들면서 현지어가 제1 언어가 되고, 한국어는 제2 언어로 물러나게 되는 ‘모국어 전이 현상’을 겪게 된다고 하였다.

조태린(2010)에서는 재외 동포 한국어 교육의 방향 정립을 위해 재외 동포에게 한국어가 갖는 지위에 대한 세 가지 견해, 즉 ‘모어로서의 한국어’, ‘제2 언어로서의 한국어’, ‘상속어로서의 한국어’에 대한 사전적 정의와 재외동포의 한국어 여건을 정밀하게 비교 검토하고, ‘상속어로서의 한국어’의 지위로 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토대로 한 교육 철학 및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강승혜(2013)와 이정희(2013) 또한 ‘계승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제시하고 있다. 강승혜(2013)에서는 계승어 관련 용어에 대한 논의를 통해 ‘계승어’를 ‘해당 민족이 사용하는 언어로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후손에게 물려주어 계승된 언어’라고 정의하고, 계승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을 재외동포 현황과 배경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또한 국내와 국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계승어로서의 한국어 프로그램을 살펴 본 후 계승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정희(2013)에서는 재외동포 아동 학습자들의 한국어 습득에 대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학부모와 교사 인터뷰를 통해 한글학교에 다니고 있는 미취학 아동이 한국어 학습자로서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한글학교의 역할과 교실 운영 방안에 대한 제안을 하였다. 또한 계승어를 ‘가족 또는 혈연과 관련된 언어로 사회에서 소수의 집단이 사용하는 언어이고, 이는 학습자가 아동기에 노출된 경험이 있어 최소한의 수동적 지식 이상을 가진 언어’로 정의하고 계승어의 숙달도는 최소한의 지식을 가진 정도에서부터 최상급까지 넓게 분포되어 있음을 밝혔다.

이와 같이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이 지향하는 철학적 관

점이나 한국어를 처음 접하는 시기, 한국어 환경, 한국어에 대한 인식 등을 토대로 재외동포에게 있어서 ‘한국어’의 의미를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2.2. 재외동포 한국어 교재 개발에 대한 논의

재외동포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교사와 학습자의 매개체인 교재에 대한 연구 또한 증가하고 있다. 교재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기존 교재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과 교재 개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김재욱(2002)에서는 기존의 교재들은 한국어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는 외국 성인학습자들을 위한 것으로 한국어에 대한 배경지식이 있는 재외동포 아동에게는 맞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외동포 아동의 특성에 맞춘 회화 교재 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와 함께 문화교육이 통합되어 나타나는 재외동포 아동용 회화 교재의 구성 원리를 제시하였다.

원진숙·박나리(2002)는 기존의 영어권 교포 자녀용 한국어 교재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재의 사용자인 교포 자녀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법을 통한 습득과정을 추적하여 문화적 요소와 체험활동이 포함된 패키지 형태의 교재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이론적 연구와 실증적 연구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김정숙(2008)에서는 재외동포용 교재 『한국어 1,2』의 교육 내용을 분석하고 아동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초급 1단계 교재의 교육 내용 구성 방안을 제안하였다. 한편 김윤주(2010)는 기존 교재의 문화교육 단위 및 문화 요소들을 분석한 후 아동 문학을 활용한 단위 구성방안을 제시하였

으며 이를 실제 수업 현장에 적용한 후 효과를 검증하여 아동 문학을 활용한 교재 개발을 제안하였다.

류선숙(2011)은 실질적인 학습자의 요구조사와 교재 분석을 통해 재외동포 아동 학습자를 위한 교재 모형을 제시하였으며, 더 나아가 김운주(2012)에서는 아동 학습자용 한국어 교재를 기초 문식성의 관점에서 교재의 내용과 학습활동을 분석한 후 각 영역이 하나의 영역에만 치우쳐져 있으며, 어휘 학습의 내용의 개선과 의미구성의 내용이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하였다.

또한 강승혜(2012)에서는 실제적인 교재 개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재외동포 맞춤형 한국어 교재 개발의 일부로 프랑스 재외동포 자녀를 위한 맞춤형 한국어 교재 개발 과제를 수행한 과정을 제시함으로써 재외동포 한국어 교재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멀티미디어 시대를 반영한 연구도 이어지고 있다. 김은영(2008)은 재외동포용 웹기반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적인 논의를 제시하였고, 김도영(2012)또한 재외동포를 위한 한글 맞춤법 교재 개발에 대한 프로그램 연구를 제시하고 있다. 고명지(2012)에서는 재외동포 한국어 교재와 웹사이트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재외동포 아동을 위한 가정 학습용 교재의 원리와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재외동포 아동을 위한 교재 개발과 관련된 연구는 최근에 와서 더욱 활발해지고 있으며, 학습자의 상황, 수요에 맞게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3. 재외동포 대상 한국어 교재 개발의 현황

3.1. 교재 개발 현황

안정현(2003:34-48)에서는 1973년, 최초의 정부 개발 재외동포용 교재부터 2003년까지의 재외동포용 한국어 교재 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2003년 이후의 개발 교재의 현황을 포함하여 살펴보면 시기별로 재외동포 한국어 교재 개발 정책이 일정한 흐름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1974년부터 1986년까지의 시기로 ‘한국어’보다는 ‘한국 문화’, ‘한국 역사’ 등 민족적 정체성 교육에 목표를 둔 교재가 개발되고 보급된 시기이다.

두 번째 시기는 1987년부터 2000년까지의 시기로 ‘한국어’ 교재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언어권별로 교재가 개발되었다는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이 시기에 개발된 교재는 같은 내용의 교재를 현지 언어로 번역만 달리한 교재가 대부분이었지만, 지역별로 교재의 단계 및 구성을 독자적으로 설정하여 개발한 교재도 있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세 번째 시기는 2000년부터 2008년까지의 시기로 언어권별 구분을 두지 않고 범용 교재를 개발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 『한국어(1~6)』와 『한글학교 한국어(1~6)』를 비롯해 『한국어 회화(1,2)』, 『한글 기초(상, 하)』가 개발되었다. 이 시기에 예외적으로 러시아어권 현지 맞춤형 교재인 『러시아어권 한국어 교재(기초, 초, 중, 고)』가 개발되기도 하였다.

네 번째 시기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의 시기로 언어권별 현지 맞춤형 교재를 개발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유아용 한국어 배우기 1, 2』를 제외하고는 모두 현지 맞춤형 교재가 개발되었다. 『유아용 한국어 배우기 1, 2』의 경우도 범용 한국어 교재에 속하기는 하지만 재외동포 학습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어린 연령의 학습자를 고려하고, 학습자 연령을 세분화하여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교육 대상의 특징 및 여건을 고려하고자 하는 이 시기 교재 개발의 인식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재외동포 대상 한국어 교재 개발의 시기별 구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재외동포용 한국어 교재 개발의 시기별 구분

구분	시기	특징	개발 교재
1기	1974~1986	민족적 정체성 함양을 위한 교재 개발의 시기	국어(재미 어린이용)(1973), 한국의 생활(재외국민 중고등학교용)(1974), 국사(재일국민용)(1974), 국어(재외국민 성인용)(1975), 한국의 생활(재외국민 어린이용)(1975), 한국의 생활(재외국민 성인용)(1976), 나의 조국(재외국민용)(1979)
2기	1987~2000	언어권별 한국어 교재 개발의 시기	한국어 I, II (일본어, 1987; 중국어, 1992), 한국어 I ~ IV (영어, 1988; 독일어, 1990; 러시아어, 1991); 한국어 VI, VI (영어, 1988), 소학교용 한국어 1~3(일본어, 1991), 소학교용 한국어 4~6(일본어, 1992), 초급 한국어 III 상, 하(서반아어, 1997; 포르투갈어, 1997), 초급 한국어 IV 상, 하(서반아어, 1998; 포르투갈어, 1998)와 다수
3기	2000~2008	범용 한국어 교재 개발의 시기	한국어 1~8(2001~2007), 한국어 회화 1,2(2001), 한글 기초 상, 하(2006~2007), 한글학교 한국어 1~6(2008~2009), 러시아어권 현지 맞춤형 교재 기초, 초, 중, 고(2006~2010)
4기	2008~현재	현지 맞춤형 한국어 교재 개발의 시기	영어권 현지 맞춤형 교재 1~6(2011), 일본어권 재외동포 어린이용 한국어 교재 초급(2009), 프랑스어권 현지 맞춤형 교재 1~6(2012), 베트남어권 현지 맞춤형 교재 1~6(2012), 중국어권 현지 맞춤형 교재 1~6(2012), 태국어권 현지 맞춤형 교재 1~6(2012), 유아용 한국어 배우기 1,2(2012)

3.2. 교재별 수요 현황

3.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외동포교육용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재는 지난 40여 년 간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이에 지금까지 개발된 재외동포교육용 한국어 교재는 약 200여 권에 이르지만 현재 현지에 공급되는 교재는 2000년 이후에 개발된 12종 55권과 지도서 9종 48권 정도이다. 이 중 범용 교재는 교재 5종 20권, 지도서 3종 18권이며, 현지화 교재는 교재 7종 35권, 지도서는 5종 30권이다. 현지화 교재 중 영어권, 일본어권, 프랑스어권, 베트남어권, 중국어권, 태국어권의 6종 31권의 교재

는 범용 한국어 교재인 『한글학교 한국어(1~6)』를 바탕으로 현지의 문화적 언어적 사정을 반영하여 현지화한 교재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현지에 보급되고 있는 교재 중심으로 범용 교재와 현지화 교재의 목록을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범용 한국어 교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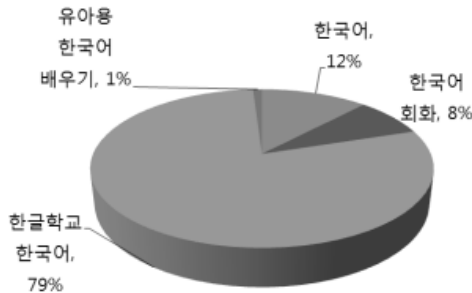
- 한국어 1~8 및 지도서 1~8(2001~2007)
- 한국어 회화 1,2(2001)
- 한글 기초 (상), (하) 및 지도서(2006~2007)
- 한글학교 한국어 1~6 및 지도서 1~6(2008~2009)
- 유아용 한국어 배우기 1,2 및 지도서 1,2(2012)

<현지 맞춤형 한국어 교재>

- 러시아어권 현지 맞춤형 교재 기초, 초, 중, 고(2006~2010)
- 영어권 현지 맞춤형 교재 1~6 및 지도서 1~6(2011)
- 일본어권 재외동포 어린이용 한국어 교재 초급(2009)
- 프랑스어권 현지 맞춤형 교재 1~6 및 지도서 1~6(2012)
- 베트남어권 현지 맞춤형 교재 1~6 및 지도서 1~6(2012)
- 중국어권 현지 맞춤형 교재 1~6 및 지도서 1~6(2012)
- 태국어권 현지 맞춤형 교재 1~6 및 지도서 1~6(2012)

위의 교재 목록을 통해 한국어 기초부터 한국어 고급까지의 단계로 세분화되어 교재가 개발되고 있다는 점과 특히 현지의 상황에 맞춰 현지화 교재가 꾸준히 개발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재외동포의 한국어 능력은 지역별로 편차가 심하고 유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의 학습자로 구성되어 있는 등 한국어 교육 여건이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재외동포를 위한 다양한 영역과 유형의 교재 개발 및 구축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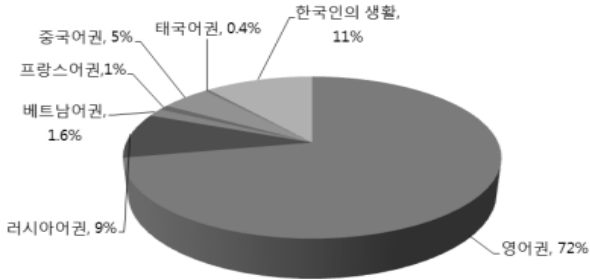
재외동포용으로 개발된 교재는 매년 1회 재외 공관 및 한국 교육원을 통해서 수요량을 조사·집계하여 연 1~2회 발송하고 있다. 현지에서는 어떤 교재를 선호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2013년도 재외동포용 교과서 주문 수량 자료²⁾를 살펴본 결과 범용 교재의 경우 『한국어(1~8)』가 전체의 12%, 『한국어 회화(1~2)』가 8%, 『한글학교 한국어(1~6)』가 79%, 『유아용 한국어 배우기(1~2)』가 1%로 나타났다.



<그림 1> 2013년 재외동포용 교과서 주문 수량(범용 한국어 교재)

맞춤형 교재의 경우 『현지맞춤형 영어권 교재(1~6)』가 전체의 72%, 『러시아어권 교재(1~6)』가 9%, 『베트남어권 교재(1~6)』가 1.6%, 『프랑스어권 교재(1~6)』가 1%, 『중국어권 교재(1~6)』가 5%, 『태국어권 교재(1~6)』가 0.4%, 『한국인의 생활(1~2)』이 11%로 나타났다.

2) 국립국제교육원의 2013년 재외동포교육용 현지맞춤형 한국어 교재 개발 자문 위원회 자료(2013.6.24.)의 통계내용을 참조하였음.



<그림 2> 2013년 재외동포용 교과서 주문 수량
(현지맞춤형 한국어 교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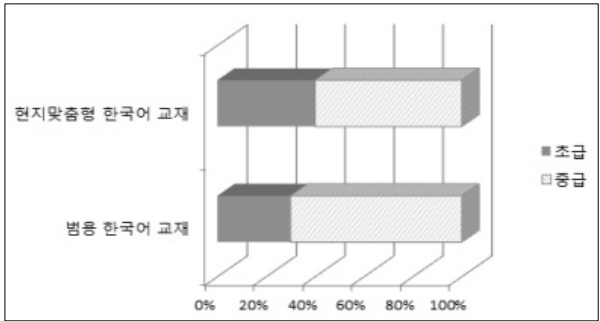
맞춤형 교재의 경우 영어권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영어권을 제외한 나머지 언어권에서는 수요가 미미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언어권별로 재외동포의 이주 역사와 규모에 차이가 있고, 현지에서의 거주 및 체류의 성격이 다르므로 절대적인 수치의 비교는 큰 의미가 없다.

또한 현지 재외동포 한국어 교육을 위해 범용 한국어 교재와 맞춤형 한국어 교재 중 어느 교재를 더 선호하는지를 파악해 본 결과 범용 한국어 교재가 전체 주문량의 60%, 맞춤형 한국어 교재가 전체 주문량의 40% 비율로 나타나 아직까지 재외동포용 교과서로 범용 한국어 교재가 선호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자료는 지역별 수요에 대한 결과는 보여주지 않고 있으므로 아직 맞춤형 한국어 교재가 개발되지 않은 언어권에서 범용 교재를 주문할 수밖에 없어 상대적으로 범용 한국어 교재의 주문량이 높게 나타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세부적으로 교재의 종류별로 급별 주문량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재외동포 교육용 교재의 한국어 수준은 TOPIK을 기준으로 할 때 4급 정도로 상정하고 5,6급 수준의 한국어는 개인의 노력이나 한국 유학 과정에서 학습하는 것을 기본 지침으로 개발되어 왔다.³⁾ 이러한 지침을 바탕으로 각 교재의 1,2권은 ‘초급’으로, 3권 이상은 ‘중급’으로 분류하였

으며 각 교재 유형의 주문량을 100으로 설정하여 비교해 보았다.4)

그 결과 초급 단계의 경우 현지 맞춤형 한국어 교재 주문량이 범용 한국어 교재에 비해 많고 중급 이상 단계의 경우 범용 한국어 교재 주문량이 현지 맞춤형 한국어 교재에 비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범용 한국어 교재 중 『한국어(1~8)』의 경우는 1~3권에 대한 주문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초급 단계 교육에서는 현지 맞춤형 한국어 교재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중·고급 단계에서는 현지 맞춤형 한국어 교재보다는 범용 한국어 교재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 범용 한국어 교재와 현지 맞춤형 한국어 교재의 급별 주문량 비교(2013년도 기준)

- 3) 류재택(2002:86)에서는 재외동포용 한국어 교육과정에서 한국어 목표 수준을 전체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하며 한국어 교육과정의 1-10등급까지의 수준을 한국어능력시험(당시 KPT) 4등급 정도의 기준으로 맞추고, 11-12등급은 KPT 5,6급 수준으로 개인의 노력이나 한국 유학 과정에서 성취하도록 준거를 마련하였다.
- 4) 『한국어(1~8)』와 『한글학교 한국어(1~6)』는 한국어 단계 체계가 상이하여 1,2권을 초급으로 3권 이상을 중급으로 구분하는 것은 엄밀하게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 그러나 『한글학교 한국어(1~6)』의 경우 통상 1,2권을 초급으로 3,4권을 중급, 5,6권을 고급으로 분류하고 있어 현지에서는 3급 이상을 중급으로 인식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세운 기준임을 밝힌다.

이러한 결과는 현지 맞춤형 교재의 경우 해당 외국어의 번역이 병기되어 있고 교재의 구성이나 내용에 현지의 사정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한국어 수준이 낮은 단계의 학습자들에게 더욱 용이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단계가 높아질수록 번역 등 현지적 요소에 비교적 제약을 덜 받으므로 현지 맞춤형 교재와 더불어 범용 한국어 교재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4. 현지 맞춤형 한국어 교재 개발의 의의

재외동포에게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표준 교육과정 설계 및 표준 한국어 교재 개발이 전제 되어야겠지만, 무엇보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언어권별 특성에 맞게 교육과정 및 교재를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지 맞춤형 한국어 교재 개발은 현지의 요구를 반영한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개발된 재외동포교육용 현지 맞춤형 교재는 현재 진행 중인 스페인어권, 독일어권, 인도네시아어권 교재 개발을 포함하여 9개 언어권에 지나지 않는다. 향후 재외동포가 거주하는 더 많은 국가, 언어권의 현지 맞춤형 교재 개발과 이미 개발된 언어권 현지 맞춤형 교재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부교재 및 학습 자료 개발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재외동포교육용 현지 맞춤형 한국어 교재 개발의 목적 및 의의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먼저 범용 한국어 교재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에서 하나의 표준, 지침이 될 수 있으나 현지의 교육 현장에 바로 투입하여 사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현지 맞춤형 한국어 교재 개발의 목적과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한국의 정서나 문화보다 현지의 사정에 더 익숙한 재외동포를 위하여 교재의 외형적인 측면에서부터 현지의 특징

을 살릴 필요가 있다. 또한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현지의 기후, 생활 습관,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주제 및 소재 선정이나 현지 재외동포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 한국어 수업 여건 등을 고려한 교육 내용 배열 및 분량 조정 등이 필요하다. 현지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교재가 교육 현장에 투입될 때 교사가 교재를 재구성하거나 보조 자료를 제작하는 등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재외동포 대상의 한국어 교육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글학교의 경우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한국어 교사 비율이 낮고, 직업으로서가 아니라 봉사 활동으로 교사직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재를 집필 의도에 맞게 활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므로 현지에서 개작 없이 바로 사용 가능한 현지 맞춤형 교재 개발은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효과적인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필수 과제이다. 최근 재외동포가 증가 추세에 있고, 거주 국가도 다양해지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더 많은 언어권에서 사용될 수 있는 현지 맞춤형 교재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의 목적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기존의 논의에서 다루어진 재외동포 한국어 교육의 철학 및 목적에 대해 조태린(2010)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①‘민족적 정체성 유지·신장 또는 모국과의 연계 강화’, ②‘재외동포의 현지 적응 및 동화 지원’, ③‘국가의 소중한 해외 인적 자원 개발 활용’, ④‘세계 시민으로 육성하여 세계 문화 창조와 발전에 기여’가 그것인데 이 중 ③은 철저히 국가적 차원의 목적이고 나머지는 국가적 입장과 재외동포의 입장을 포괄적으로 반영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국익, 나아가서 세계적 차원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인재 양성 및 관리 차원의 목적과 원활한 현지 적응 및 성공적인 정착이라는 재외동포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를 한국어와 현지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이중언어화자이면서 양국의 문화에 익숙한 인재

로 양성해 내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현지에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과거에는 현지에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현지어와 현지 문화에 익숙해지는 것에 중점을 두어 한국어를 배우는 것을 등한시하였으나 최근에는 이중언어 교육의 성과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을 보존하면서 모국어 및 모국 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유창성을 갖추고 있을 때 현지에서 성공적인 동화가 가능하고 나아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발판이 된다는 방향으로 논의가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재외동포 2,3세로 갈수록 국가적, 민족적 유대가 약해지고 있어 한국어 학습에 대한 동기도 약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의 한국어 학습 동기를 강화하고 효과적인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범용 한국어 교재나 표준 한국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하되 현지의 정서나 교육 체계의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맞춤형 교재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어 최고급 숙달도를 달성할 수 있는 학습자로 재외동포가 적격이라고 할 때 이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한국어 교재를 개발하고 지원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친한적인 글로벌 인재를 보다 효율적으로 양성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재외동포 입장에서도 현지 언어와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한국어 교재를 통해 한국어를 배움으로써 다른 언어를 배우는 것보다 비교적 쉽게 터득할 수 있어 경제적이라는 이점이 있고, 한국어 능력과 함께 거주국의 언어 능력도 동시에 함양할 수 있어 양국의 가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이중언어 화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5. 재외동포용 한국어 교재 개발을 위한 제언

지금까지 개발된 재외동포교육용 한국어 교재를 시기별로 구분하여 각 시기의 특징을 살펴보고, 현재 보급되고 있는 교재의 현황 및 수요 자

료를 분석하여 재외동포교육용 한국어 교재 개발의 성과를 검토해 보았다. 그간 정부의 재외동포 교재 개발 정책, 국내외 한국어 교육 전문가의 노력으로 여러 종의 교재가 개발되었고, 최근에는 범용 한국어 교재 개발과 함께 여러 언어권을 대상으로 현지 맞춤형 교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의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재외동포 한국어 교육적 여건을 고려할 때 지금의 성과에 만족하고 안주해서는 안 된다. 이에 향후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한국어 교재를 개발하여 현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며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현지의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교재를 개발해야 한다. 교재가 교육 현장의 요구를 담보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재외동포의 경우 언어권별, 국가별 한국어 교육 여건에 간극이 커 현지의 모든 요구를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현지에서 직접 교재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보완 및 개선점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국가, 언어권별로 교육 현장의 요구를 세밀하게 검토하고 분류하여 현지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현재 9개 언어권 교재가 개발되거나 개발 진행 중인데, 힌디어나 아랍어 등 보다 다양한 언어권별 교재 개발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동일 언어권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에 따라 현지의 상황과 여건이 다르므로 세분화된 맞춤형 교재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교재 개발과 함께 부교재, 학습서, 교구, 교육 자료 등 다양한 유형의 교재를 개발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둘째, 현지 한국어 교사의 교재 개발 및 활용 능력 강화가 필요하다. 다양한 교재를 구축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한국어 교사의 교재에 대한 안목과 교재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일 것이다. 모든 교육적 상황에 정확히 부합하는 교재를 갖추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교사가 해당 교재를 제대로 파악하고 교재를 활용한 수업을 설계하고 교육 기관

및 학습자 특성에 맞게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재 개발과 함께 재외동포 대상 한국어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재 개발 및 활용을 주제로 한 워크숍, 연수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어 수업의 연속성 및 몰입성 강화를 위한 가정 학습과의 연계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한국어 교육은 주로 한글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글학교에서는 일주일에 1회, 많으면 3~4시간, 적으면 1시간 정도의 한국어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수업의 연속성이 매우 떨어져 효율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한글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가정에서도 연계해서 학습할 수 있다면 한국어 수업의 연속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정희(2013a : 415-416)에서는 아동 대상 교육에서 교육적 효과가 이미 검증된 레지오 에밀리아 교육 원리인 ‘학부모 참여’의 일환으로 한글학교 유아반에 학부모 참여 수업을 제안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부모와 함께 수행해야 하는 워크북이나 부모용 지침서를 제공하여 자녀의 한국어 교육에 부모를 참여 시키거나, 상대적으로 한국어 문어 입력이 부족한 재외동포를 위해 부모가 직접 읽어 줄 수 있는 ‘읽기 교재’를 제공하여 한글학교에 가지 않는 날에도 한국어를 꾸준히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효과적일 것이다.

넷째, 교재의 효율적 활용과 자료 공유를 위한 통합 사이트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교재 보급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운영하는 KOSNET 등을 통해 개발된 교재를 e-book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데 교재뿐만 아니라 교육 자료, 활동지, 교구를 비롯해서 ‘문화’와 관련된 보충 자료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교육자 간에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교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자료 게시 권한을 현지 교육자에게도 부여하여 교육자 간에 정보 교류 및 공유를 활발히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현지의 이민 정책이나 소수 민족 언어 정책을 파악하여 연계

성을 가지고 교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현지에서 교수하고 있는 소수 민족에 대한 태도는 언어 교육의 방향 및 목표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일례로 미국의 다문화 정책이 멜팅팟(melting pot)에서 샐러드 볼(salad bowl)로 변화하면서 현지 재외동포 대상 한국어 교육도 함께 외적, 내적으로 변화를 겪었다. 그러므로 교재 개발 시 해당 지역의 언어 정책을 고려한다면 현지 한국어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교재는 학습자 요구를 중심으로 개발되어야 하며, 단 한 명의 학습자를 위해서라도 개발되어야 할 명분은 있다. 그러므로 학습자의 수요, 학습자의 규모만으로 교재 개발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시각에서 잠재적인 한국어 교재의 수요를 파악하여 구축해 놓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요컨대 3.1에서 논의한 1기부터 4기까지의 재외동포용 한국어 교재 개발의 발전과 변화에 이어 향후 5기에서는 동일 언어권 내에서도 국가별, 지역별로 더욱 세밀화된 교재 개발로 학습 대상에 따른 교재의 다양성을 담보하는 시기가 되어야 한다고 전망한다.

<참고 문헌>

- 강승혜(2012). 프랑스어권 재외동포 맞춤형 한국어 교재 개발 -프랑스 파리 한글 학교를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37권, 연세대학교 언어연구 교육원 한국어학당. 1쪽~39쪽.
- 강승혜(2013). 계승어로서의 한국어 교육(Korean Education as a Heritage Language)에 대한 소고: 방향과 향후 과제, <언어사실과 관점> 31권,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구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원). 79쪽~105쪽.
- 고명지(2012). 재미동포 미취학 아동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가정학습 교재 개발 방안 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도영(2012). 재미동포를 위한 웹기반 한글 맞춤법 교육 프로그램 연구, 고려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윤주(2010). 재외동포 아동학습자용 한국어 교재 개발 방안 연구 -아동문학 재료를 활용한 문화교육 단원 구성 방안, <한국어교육> 21권 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61쪽~85쪽.
- 김윤주(2012). 재외동포 아동 학습자용 한국어 교재의 기초 문식성 학습 활동 분석, <어문논집> 66호, 민족어문화회. 237쪽~264쪽.
- 김은영(2008). 재외 동포를 위한 웹 교재 개발에 관한 기초 연구 -중급 이상을 중심으로, <한말연구학회 학술발표논문집>, 한말연구학회. 154쪽~167쪽.
- 김정숙(2008). 재외동포용 한국어 교재 개발 방안 연구-초급 1단계 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37호, 이중언어학회. 61쪽~83쪽.
- 김정숙(2010). 사회적 상호작용을 활용한 재외동포 아동 한국어 교육 방안, <이중언어학> 42호, 이중언어학회. 25쪽~46쪽.
- 김중섭(2011). CIS 지역 재외동포 대상 한국 문화 교육 항목 개발을 위한 기초 조사 연구, <이중언어학> 45호, 이중언어학회. 51쪽~75쪽.
- 김중섭(2011).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교육 연구의 현황과 과제, <이중언어학> 47호, 이중언어학회. 627쪽~657쪽.
- 김재욱(2002). 재외동포 아동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회화 교재의 구성원리 및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어 교육> 13권 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67쪽~85쪽.
- 김민수(2005). 재외교포의 이중언어에 대하여, <이중언어학> 29호, 이중언어학회. 1쪽~9쪽.
- 김호정(2007). 재외동포의 한국어 사용 실태 연구 방향에 대한 일고찰-한국어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관점에서, <한국어교육> 18권 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73쪽~100쪽.
- 류선숙(2011). 재외동포 아동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모형 개발,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류재택 외(2002). 재외동포용 한국어 교재 개선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서.
- 박영순(2005).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교육; 이중언어교육의 최근 동향과 재외동포의 한국어교육 문제, <이중언어학> 28호, 이중언어학회. 11쪽~31쪽.
- 안정현(2003). 재외동포 교육용 한국어 교재 개발 · 공급 현황 및 개선 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원진숙 · 박나리(2002). 영어권 교포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 방향, <이중언어학> 20호, 이중언어학회. 193쪽~212쪽.
- 이정은(2005). 재외동포의 이중언어사용 상황과 한국어 학습 양상의 특성-질적 연구 방법을 통한 교육 현장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사회언어학> 13권 2호,

- 한국사회언어학회. 193쪽~217쪽.
- 이정희(2013a). 계승어 사용자로서의 재미동포 미취학 아동을 위한 한글학교 유아반 교실 운영 방안, <이중언어학> 52호, 이중언어학회. 391쪽~424쪽.
- 정명숙(2010). 재외동포 유아 대상 한국어 교육 방안, <이중언어학> 44호, 이중언어학회. 295쪽~317쪽.
- 조태린(2010). 재외동포에게 한국어가 갖는 의미-재외동포 한국어 교육의 방향 정립을 위하여, <한국어교육> 21권 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93쪽~218쪽.
- 조항록(2004).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정책의 실제와 과제, <한국어교육> 15권 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99쪽~232쪽.
- Brinton, D., Kangan, O. & Bauckus, S.(eds)(2008). *Heritage Language Education: A New Field Emerging*, London, Routledge.
- Lee, J.(2008). Heritage Learners of Korean Revisited: Their Attitudes toward Teacher's Language Use, *Foreign Language Education* 15(3), 121-139.

김중섭(Kim, Jungsup)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30-701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26
전화번호: 02-961-0080
전자우편: jskim@khu.ac.kr

접수일자: 2013년 12월 20일
심사(수정)일자: 2014년 1월 22일
게재확정: 2014년 2월 5일